

일본점령기에 대한 베트남의 역사인식과 평가: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노영순*

- I. 머리말
- II. 일본의 베트남 점령과 베트남인의 기의
- III. 교과서와 학계에서 나타난 일본군 점령기에 대한 역사인식과 논점
- IV. 맺음말
- [부록] 일본군 점령시기에 대한 베트남 역사교과서 내용

I. 머리말

20세기 초두 베트남 지식인들에게 일본은 희망을 주는 국가이었다. 일본은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단행했을 뿐만 아니라 20세기를 전후해서는 동서의 전통적인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로 인해 베트남의 대표적 민족주의자인 판 쩐(Phan Chu Trinh)과 판 보이 쉐우(Phan Boi Chau)는 베트남인의 프랑스에 대한 투쟁을 일본이 도와줄 수 있다고 보았으며, 실제로 짧기는 하지만 일본으로의 유학운동(東遊運動)을 전개하기도 했다. 1907년 동아시아에서 서로의 영향권을 존중한다는 데에 프랑스와 합의한 일본이 베트남 민족주의자들을 추방했기에 이러한 기대는 어긋났지만 베트남 왕가의 장손인 끄엥 데(Cuong De)에 대해서는 간헐적인 약간의 물

*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질적인 지원이 계속되었다.

베트남과 일본의 관계를 소원하게 했던 일본과 프랑스간의 상호 세력권에 대한 존중은 20여 년을 넘게 유지되었으나, 1930년대 말에 일본이 제국주의적 의도를 명백히 하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무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자 이 두 제국 사이의 힘의 균형은 깨어졌다. 일본은 1940년에는 북부베트남을 1941년에는 남부베트남을 점령하여 세력권에 넣고 프랑스 식민세력을 통해 간접통치하는 방식을 취하다가 1945년 3월 전격적으로 프랑스 식민 세력을 축출하고 바오 다이 황제에게 베트남의 독립을 선언하도록 함으로써 독립국가 위에 군림하는 단일한 최고 점령 세력이 되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착안하여 일본의 인도차이나 반도 점령이 프랑스 제국이라는 우상을 파괴하고 프랑스 식민 정권을 무력화시켰으며 아무리 형식적일지라도 베트남의 독립이라는 ‘원망’을 실현시켰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점령 당시 일본이 프랑스 식민 세력을 약화시키고 동시에 일본에 대한 지지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베트남인의 다양한 조직 활동을 고무시켰던 사실로 인해 베트남인의 민족주의적 열망이 표현되는 통로를 열어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이는 다시 베트남인이 자신을 ‘해방’시킨 계기로 작용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1945년 8월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하고 이전 식민세력인 프랑스가 바로 인도차이나 반도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던 몇 주간 베트남에는 권력의 공백이 생겼으며 바로 이 공백을 공산주의자를 중핵으로 한 베트민(베트남독립동맹, Viet Nam Doc Lap Dong Minh)이 매워가면서 베트남의 독립이 실현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던 상황도 베트남에 대한 일본점령이 가져온 부산물이지만 중요한 결과였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특히 일본이 프랑스 식민 세력을 축출한 시점은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열세로 급속하게 기울어 가는 때였고 이와 함께 점증한 베트남에 대한 인적·물적 수탈은 일본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 ‘대동아공영권’ 개념은 물론 베트남의 독립 보장 등

— 깨고 남음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에 행해진 일본의 수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일본이 베트남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의 수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대략의 베트남-일본 관계사와 시간상으로 베트남 혁명 내지는 독립 직전에 위치한 일본점령기에 대한 평가를 염두에 두고, 본 연구는 베트남 고등학교 역사교과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보면서 네 가지의 분명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의 베트남 점령과 베트남인의 대응을 고찰한다. 둘째, 베트남의 교과서에 표현되어 있는 일본의 점령과 이의 영향, 그리고 평가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반일투쟁의 선봉에서 있었으며, 이로써 정권의 정통성을 확고히 한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고 역사에 대한 ‘정통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점이 분명히 인식될 필요가 있다. 셋째, 단순화된 교과서 논리를 벗어나 가능하다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 역사학자들의 일본점령 하의 베트남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일본점령기에 대한 논쟁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일본의 베트남 점령과 베트남인의 기의

1. 베트남에 대한 일제의 관심과 침략 과정

베트남에 대한 일본의 제국주의적 관심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서 출발했다. 그 첫째로는 1930년대를 걸쳐 끊임없이 진행되었던 중국으로의 진출이 가져온 결과였다. 1939년 2월 베트남의 북부와 국경을 접하는 중국 廣西지방에까지 이르러 南寧(Nanning)을 점령한 일본군은 당시 장개석 정권의 필요 물자를 절반 이상 수송해 주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던 베트남과의 국경지대를 폐쇄하고자 했다. 이 때문에 일본의 베트남 북부로의 진입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전략상 필요한 대안이었으

며, 이를 구실로 하여 위협과 협상을 되풀이하면서 북부 베트남을 경락했다. 두 번째는 중국으로의 진출이라는 북진의 실현가능성이 낮아지자, 태평양 지역으로의 남진이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활로로 제시되었다는 데에 있다. 베트남은 이제 일본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제패하기 위해 필요한 베이스캠프로 중시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남부 베트남도 일본의 점령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베트남 주변 지역에 대한 위와 같은 일본의 관심으로 인해 베트남은 태평양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본 세력이 진입한 최초의 동남아시아 국가가 되었으며 가장 오랜 시간을 점령당한 동남아시아 국가가 되었다. 당시 몇 가지의 특수한 상황이 일본의 베트남 점령이 갖는 성격을 규정지었다. 그 하나는 당시 베트남은 라오스, 캄보디아와 함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구성하고 있었던 까닭에 일본의 베트남으로의 진입은 “佛印占領”이라는 단어가 표현하듯 프랑스와의 담판이나 무력시위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일본이 베트남에 진입한 시점은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 항복하고, 프랑스인 인도차이나총독도 비시정권의 지시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에 머물 수만 있다면 일본에 대한 어떠한 양보도 ‘승리’라고 간주하고 있었던 때였다. 때문에 일본제국주의 역사에는 존재하지 않는 양식, 즉 여타의 동남아시아에서 유럽 식민세력을 일소하고 단독으로 점령 지배했던 것과는 달리 인도차이나에서는 프랑스 식민세력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공동’으로 베트남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었다. 태평양전쟁이 일본의 수세국면으로 치닫고, 프랑스 본국의 해방은 물론 佛印정권의 비협조 내지는 배신의 가능성을 감지한 일본은 1945년 3월 9일 이를 기습 공격했다. 프랑스 측으로부터 약간의 저항이 있었으나 곧 평정되어 인도차이나는 실질적으로는 물론 명목적으로도 일본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 해 8월 일본이 항복하는 시점까지 일본이 단독으로 베트남을 경락한 기간은 태평양전쟁 말기 수개월에 지나지 않아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짧았다. 때문에 후인 킴 카인은 이 시기를 ‘일본인 막간극’(Japanese

Interlude)이라고 명명했다(Huynh Kim Khanh 1982, 291-4).

이처럼 베트남에 대한 일본의 점령이 갖는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음 장에서 다룰 이 시기에 대한 베트남인의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베트남에 대한 일본 점령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¹⁾

1940년 6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총독 까뜨루(Georges Catroux)는 당시 최대의 대 장개석 물자 반입로였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루트의 폐쇄에 대한 일본의 요구를 수용했다. 즉 베트남과 중국 간의 국경을 폐쇄하고 이를 감시하기 위해 파견되는 국경 감시단의 입국을 받아들였다. 니시하라 소장(General Nishihara Issaku, 西原一策)이 이끄는 국경 감시단은 곧 일본군대의 주둔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중국국민당으로 가는 보급로를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하여 일본의 중국 봉쇄가 주된 목적인 것처럼 보이거나 인도차이나가 남진을 위한 기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

1940년 8월 30일에는 일본이 인도차이나의 프랑스 권익을 존중하는 대신 프랑스는 인도차이나에서의 일본의 경제·정치적 우위를 인정하는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는 구체적으로 일본군대의 하노이 진주와 비행장 사용권에 대한 일본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며 이로써 일본군의 인도차이나 진입의 교두보가 마련되었다.

프랑스 식민정권은 주둔하는 일본군의 숫자를 제한하고 더 적은 비행장을 개방하고자 일본과 협상을 계속했다. 그러나 9월 6일과 7일 사이 일본 항공기가 베트남 북부에 있는 랑 선(Lang Son)의 영공으로 들어오고 두 보병 중대가 전열을 가다듬고 국경선을 넘어 진입해 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9월 14일 일본 내각은 오는 22일 일본군대를 인

1) 베트남에 대한 일본점령기 연구는 일본인 역사학자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주제이다. 때문에 양적으로 많은 연구가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의 공문서 자료를 면밀히 이용한 질적으로도 좋은 연구서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코넬대학교 출판부 번역시리즈로 1992년에 출간된 *Indochina in the 1940s and 1950s*에 실린 네 개의 논문은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막에 접근하는데 유익한 자료이다.

도차이나에 진입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프랑스 식민당국은 마침내 9월 22일 일본에 북부 베트남에 있는 세 개의 비행장 사용권과 6,000명의 병사를 주둔시킬 수 있는 권리 그리고 25,000명 이내의 일본병력이 북베트남을 경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군사협정에 조인했다.²⁾ 이러한 타결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일단의 일본군이 국경을 넘어 랑 선과 하이 phong(Hai Phong)에 진입하여 프랑스군과 충돌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써 중국-베트남 국경 폐쇄에서 시작된 일본의 요구는 인도차이나에 있어서 일본의 경제·정치적 우위 확보를 거쳐 북부 베트남에 대한 군사적인 지배권 확립이라는 데에까지 이르렀다. 이는 일본이 베트남 북부를 이용해 연합군의 원조물자가 중국의 항일세력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음으로서 중국 대륙에 대한 작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베트남 남부를 동남아시아 공략의 전진기지로 만드는 첫 작업이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일본제국의회의 승인을 받은 ‘상황변화에 따른 국가 정책 대략’을 보면 베트남 남부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으로의 일본 제국주의 팽창이 확정된 시점은 1941년 7월이었던 듯하다. 그 내용 중에는 ‘세계 상황의 변화에 상관없이 일본은 대동아공영권을 창설한다는 기존의 정책에 충실할 것이다’라는 대목이 있다. 잇달아 남부 베트남을 경략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행해졌다(Masaya Shiraishi et Motoo Furuta 1992, 68). 결국 7월 23일 남부베트남 경략을 놓고 프랑스와 일본 간에 조약이 조인되었다. 조약에는 남부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있는 여덟 개의 공군 기지와 캄 라인(Cam Ranh)과 사이공을 포함한 세 지역

2) Tran Huy Lieu, Nguyen Luong Bich, Nguyen Khac Dam Bien soan, *Tai Lieu Tham Khao Lich su Cach mang can dai Viet Nam* (베트남근대혁명사 참고자료), tap VIII, “Xa Hoi Viet Nam trong Thoi Phap Nhat(1939-1945)”[佛日시기 베트남사회], Quyên I, Phap dau hang Nhat, Nhat, Phap boc lot Viet Nam [일본에의 프랑스 항복, 佛日の 베트남 착취], Hanoi: Nha xuất ban Van su dia, 1957, pp. 16-18. 이 책에는 1940년 9월 22일 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이전과 이후에 일본과 프랑스가 합의한 문건들의 내용이 11페이지부터 30페이지에 걸쳐 잘 소개되어 있다.

에 있는 해군 기지를 제공하며 40,000명의 일본군대가 인도차이나 남부로 파병되며 행동의 자유를 누린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3일 후 수미타(Sumita)가 작전을 지휘·감독하기 위해 사이공에 도착한 이래 일본군의 남베트남으로의 진주는 단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며, 사이공에는 일본 남방군 총사령부가 설치됨으로써 인도차이나로의 일본군 진주가 완료되었다. 점차 군대는 증강되어 1941년 10월에는 80,000명에 이르렀으며 전베트남에 대한 일본의 군사·정치적 우월권이 확립되었다. 12월 9일 프랑스와 일본은 공동방위조약을 체결하여 프랑스 식민당국이 후방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대신 일본군의 군사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는 양해가 성립되었다(Tran Huy Lieu et al. 1957, 25-6).

2. 상황의 변화에 대한 베트남인의 대응

일본의 진출에 대한 베트남인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은 두 가지 방향에서 왔다. 하나는 이들을 이용하여 프랑스 식민정권을 타도하려는 시도로, 특히 베트남 북부에서 나타났다. 둘은 태국이 예전에 프랑스에 양보했던 캄보디아와 라오스와의 접경지대를 일본세력이 동남아에 진출한 틈을 타 ‘회복’하려고 기도하고 프랑스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베트남인을 병사로 징집하려는 차에 남부와 중부에서 발생했다.

전술한 1940년 9월 22일 협약이 체결된 그날 중국 남부에 있던 일단의 일본군이 국경을 넘어 랑 선 지방으로 진격해 들어오자 프랑스 군대는 패주를 거듭하며 박 선(Bac Son)지방과 타이 응우옌(Thai Nguyen) 지방으로까지 퇴각했다. 이 때 진주한 일본군대 내에는 일본의 힘을 빌려 프랑스를 축출하려고 한 베트남 復國同盟會(Viet Nam Phuc Quoc Dong Minh Hoi) 소속 베트남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혼란의 와중에서 도망가는 프랑스군인의 무기를 탈취하여 소요에 참가했던 랑 선의 민중들과 함께 식민세력의 요새를 공격했다. 박 선의 지방 공

산당 세포도 이에 동참하여, 9월 27일 무장 유격대를 조직하여 프랑스 군의 요새를 공격하는 등 식민세력에 일격을 가했으나, 일본의 양해를 얻은 프랑스가 다시 공세를 취해 이들의 투쟁은 실패하고 말았다. 베트남 측에서는 박 선 기의라고 부르는 이 무장 투쟁에서 우리는 향후 일본과 베트남의 관계와 반외세투쟁의 조직화라는 면에서 몇 가지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그 첫째는 일본을 믿고 일본군대와 함께 베트남에 들어와 프랑스 군대와 싸웠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에 항복하라는 일본의 명을 받았으며, 이를 어기고 그 해 말까지 계속 저항하다가 체포되어 처형을 당한 베트남 북국동맹회의 전 후이 럽(Tran Huy Lap)에 의해 대변된다(Tran My Van, 1999, 135). 베트남의 어떤 세력도 일본의 도움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다거나, 일본이 베트남에서 진정한 의미의 친일세력을 갖는다는 희망은 처음부터 어그러졌는지 모른다. 두 번째 의미는 박 선에서의 기의에 참가했던 이들이 기의 실패 후 산 속에 들어가 게릴라 부대를 조직했다는 데에 있다. 이는 후에 베트남군의 중핵 부대로 발전했다.

일본의 진출은 남부와 중부 베트남인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일본이 동남아시아 대륙부와 해양부를 잇는 중심국으로서 태국을 중시하여 외교권에 포섭했고 태국은 나름대로 일본 쪽으로 기울는 대신 '실지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발했다. 1940년 10월 태국은 이전에 프랑스의 압력으로 캄보디아에 할양해야했던 영토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캄보디아와 라오스 변경을 침입했다(Reynolds 1994, 25-8). 베트남 남부에서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태국 간 국경분쟁이라 할 만한 사태에 당면하여 전쟁터로 징집되어 가야 했던 베트남인의 불만은 높아졌다. 사회적 불확실성과 전반적인 동요가 팽배한 분위기에서 인도차이나공산당(Dong Duong Cong San Dang) 남부 위원회는 혁명적인 상황이 성숙했다고 판단하여 11월에 전면 봉기할 것을 명령했다. 이 봉기 결정이 인도차이나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프랑스 정보망에 사전에 노

출된 상태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난 남부에서의 봉기는 철저한 탄압을 피할 수 없었다. 베트남공산당사에서 ‘남 끼 기의’(Khoi nghĩa Nam ki)라고 불리는 이 무장 투쟁의 실패와 이를 이은 탄압으로 호찌민(Ho Chi Minh)에 버금가던 공산당 지도자, 레 홍 phong(Le Hong Phong)을 비롯하여 인도차이나공산당 남부 위원회 위원 다수를 포함해 약 8,000명이 체포되고 100여명이 처형되었다고 한다(Ngo Van 2000, 270-83).

III. 교과서와 학계에서 나타난 일본군 점령기에 대한 역사인식과 논점

내용의 분석에 앞서 일본군 점령기를 설명한 부분이 베트남역사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확인해 보는 작업은 중요하다. 분석의 대상인 『베트남 역사교과서 12』, 하권은 20세기베트남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이는 모두 여섯 장으로 구성되는데, 일본점령기는 2장 베트남민족해방 혁명(1930-1945)의 7절 8월혁명운동이라는 제목에서 다루어진다. 이 절에서 일본점령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인도차이나반제통일민족전선의 성립과 혁명을 영도해 갈 베트민전선의 형성, 8월혁명 사이에 놓여있다. 일본점령기가 놓인 이 위치가 바로 학계에서 일고 있는 후술하게 될 새로운 역사인식과 관련되어 있다.

베트남 역사교과서가 일본군 점령기와 관련해 전하고 있는 주제는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는 일제 점령기 지배 권력의 주제 문제이다. 일본군 점령기를 프랑스와 일본의 이중 지배기로 일관되게 파악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일본이 베트남에서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 친일세력과 대동아공영권 사상 혹은 일본문화 부흥운동에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수탈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넷째로는 파시스트 일본과 식민주의자 프랑스의 수탈 경제와 착취 정치의 마지막 최악의 결과로 200만 명에 이르는 베트남인의 아사를 꼽고 있다. 역사 교과서가 전하고 있는 이상의 주제 중에서 학계에서 새로운 해석이 계속해 나오고 있는 부

분은 ‘친일세력’ 내지는 ‘중간세력’에 대한 논의와 1945년 기근이 이후의 역사에서 갖는 의의이다.

1. 일제점령기 지배권력의 주체 문제: 프랑스-일본 지배기

1940년 9월 북부 베트남으로의 진주에서 시작하여 1941년 7월 남부 베트남으로의 진주라는 형태로 완결된 일본의 베트남 점령은, 태평양전쟁의 발발에 앞서 일본과 프랑스 간의 여러 협정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프랑스 식민정권의 대일협력을 확보한 일본은 대전 말기인 1945년 3월까지 프랑스 식민정권을 존속시켰다. 1945년 3월 9일, 연합군의 인도차이나 상륙이 임박해 옴에 따라 더 이상 프랑스 식민정권의 대일협력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일본에서는 ‘佛印處理’라고 알려진 일종의 쿠데타를 통해, 프랑스 식민정권을 타도했다. 이 후에는 일본인이 구 프랑스 총독부의 요직을 ‘관장’하여, 사실상의 일본 단독 지배체제를 구축했지만, 외형상으로는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의 국왕들에게 ‘독립’을 선언하게 한 형태를 갖추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은 이 시기의 실태에 부합한 명칭을 놓고 다른 인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대체로 1940년 9월부터 1945년 3월까지 프랑스 식민정권은 전면적인 대일협력에 의해서만 그 식민 지배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사실상 인도차이나의 최고 지배자였다고 말해도 대차는 없는 상황이었고 1945년 3월 9일부터 8월의 패전까지 5개월 정도 되는 기간에는 일본의 독자적인 지배가 행해졌다는 사실을 들어 이 전 기간을 베트남에 대한 ‘일본점령기’라고 부른다(古田元夫 2001, 504-5). 이를 양분하여 1945년 3월을 기점으로 그 전을 제1단계 점령통치, 그 후를 제2단계 점령통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조재현 1995, 118).

그렇다면 베트남 밖에서 불려지는 일본점령기라는 표현을 쓰는 대신 일본-프랑스가 공동으로 지배하고 착취했던 기간으로 교과서가 언

급하고 있는 이유를 교과서 내용을 들여다 보면서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이는 일본이 베트남 지배를 프랑스와 ‘공동으로’ 그리고 ‘협약’에 의해 실행했었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교과서는 일본이 필수 식량, 전쟁 농작물과 광산물을 직접적으로 혹은 프랑스의 손을 빌어 간접적으로 착취해 갔다는 사실과 같은 무게를 두어, 프랑스 식민정부도 ‘전시를 이용하여 인도차이나 경제의 모든 면에 대한 독점권을 장악하고 주세, 소금세, 아편세 등 간접세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챙겼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식량 징발에 대해서는 프랑스 식민정부는 일본의 요구 양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될 수 있는 한 많은 양을 비축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속임수 정치 수단들에서도 파스시트 일본과 인도차이나 혁명이라는 위협적인 세력 앞에서 프랑스 식민당국은 ‘두 가지 정책’을 통해 베트남인을 억압하고 오도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 인민에 대한 탄압과 착취라는 면에서 프랑스와 일본은 다를 바가 없었음은 물론 공동으로 협력하여 베트남을 희생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있다.

베트남 역사 교과서가 담고 있는 이러한 이해는 일본점령기 역사인식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미친 일본 점령시기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가정’, 즉 일본이 서구 세력의 힘의 우위, 즉 백인에 의한 식민통치구조를 단번에 무력화시켰다는 추론의 설득력을 약화시킨다. 그 중 하나인, 무력화된 유럽 제국이 일본의 점령기 동안에 별도로 이전 식민지를 대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없었음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오해를 불식시킨다. 적어도 프랑스 식민정권이 베트남을 탄압하고 착취할 수 있는 힘은 예전과 같이 보유하고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일본의 핑계, 묵인 내지는 비호를 받아 강화된 측면도 있다. 또 다른 논의는 프랑스 식민정권의 무력화 → 민족주의자들의 활동 여지 → 독립이라는 도식으로 연결되기도 하며 소위 일본점령기가 궁극적으로 동남아시아의 해방을 가져왔다는 이른바 ‘해방사관’으로 비약되기도 하는 논리에 대한

경고이다. 프랑스와 일본이라는 이중의 그것도 소위 ‘협력 착취체제’는 일본이 프랑스 식민세력을 무력화시켰던 것도 아니며 이 속에서 민족주의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도 아니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

둘은 일본점령기를 동남아시아 현대사의 단절이라기보다는 연속으로 파악하고 있다. 극대화시킨다고 하더라도 베트남에 대한 일본의 점령은 1858년 이래 시작되어 1954년까지 90여 년이 넘는 기간에 걸친 프랑스의 지배와 그에 대한 베트남인의 저항으로 엮어진 현대사에서 발생한 간막극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패전과 함께 다시 돌아온 프랑스 식민 세력과의 투쟁이라는 일본점령기를 이은 간난의 역사를 거쳐야 했던 베트남의 역사인식에서 본다면 당연한 귀결이라고도 볼 수 있다. 셋은 일본과 프랑스의 세력 관계나 내부 거래가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는가와 상관없이 지배의 대상이 된 베트남인 개인이나 전체로서의 민족이 한 경험, 즉 밑으로부터의 역사인식을 담고 있다고 보인다.

2. 기만의 정치와 친일세력 평가에 관한 문제

일본은 베트남인을 효과적으로 점령에 봉사하도록 동원하기 위해 많은 장치를 기안했다. 일본어 교습은 물론 일본 서적과 대중 예술을 통해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각인시키려 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강대한 무력을 자랑했다. 대동아공영권 언설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문과 무력 공세는 의도한 바대로 일본의 점령을 미화시키지는 못했으나 베트남인이 가지고 있었던 프랑스의 무력에 대한 환상을 약화시켰다는 데에는 의의가 거의 없다. 그러나 베트남 역사교과서에서 일본점령기의 베트남인 정치 담당자에 대한 기술에서는 다소 세심하고 복잡한 함의를 찾아볼 수 있다.

사실 베트남에서는 중국, 북조선과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 후

의 정치무대에서 정통성을 가진 집권세력은 일본점령기 동안 일관되게 반일 운동을 담당했던 공산당이였다. 베트남에서 태반의 경우 일본에 협력하거나 그 의혹이 있는 정치인들은 정치생명을 잃어버렸다. 베트남 역사 교과서가 친일 인사들과 그 정당, 그리고 단체를 ‘일본의 주구’였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역사 해석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통 정권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친일 = 반민족이라는 직접적인 등식을 사용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반 프랑스 정서를 가진 개인과 종교단체들이 일본에 의해 이용된 듯한 인상을 주면서 이 부분이 기술되어 있음은 친일파를 강하게 단죄하는 것을 피하면서 국민통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한다. 그러나 바로 이 친일의 문제는 베트남에서의 일본점령기를 다루면서 조심스럽고 때로는 ‘반동적인’ 해석이 계속해 제기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1975년 북베트남이 아니라 남베트남이 베트남 통일의 주체가 되었다는 가정을 해 볼 때, 그리고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점령기를 다양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Christie 2000, 87) 이 문제의 본질은 더욱 명확해 질 수 있다.

먼저 친일세력의 대표로 간주되는 베트남 북국동맹회와 까오 다이교를 통해 자세한 내막에 접근해 보자. 베트남 북국동맹회는 일본이 프랑스 식민정부를 몰아내고 나서는, 1915년 이래로 일본에 망명해 있던 쯔잉 데를 수반으로 하는 베트남의 독립 정부가 형성되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 내지는 가정에 기반을 두었다. 버마 독립의 아버지 아웅 산도 바로 이러한 희망 하에서 일본군의 버마 진입을 도와주었음은 물론 일본이 인정한 독립 버마의 일꾼으로 일했었다. 쯔잉 데의 양자인 쩐 미 타인(Tran My Thanh)이 일본남방군의 도움을 받아, 프랑스를 타도하고 베트남을 복원시키고자 했으나 상황은 버마에서와는 달랐다. 전술했다시피 프랑스의 타도와 베트남의 재건을 위해 베트남인의 부대는 일부 일본 군대가 중국과 베트남의 국경을 넘어 랑 선 지방에 있는 프랑스 군사기지를 급습했던 1940년 9월에 이에 합류했으며, 그 지휘관

쩐 쯡 립(Tran Trung Lap)과 일부 베트남인은 프랑스군과 휴전하라는 일본의 명령을 어기고 계속 전투에 참가했으며 이로 인해 처형되었다. 이는 같은 해 말 남끼에서 프랑스 식민 정부와 태국 간의 영토분쟁에 베트남인이 나아가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에서 야기된 불만을 이용해 프랑스를 타도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던 남끼 기의와 반 프랑스 투쟁이라는 면에서는 어찌 보면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일본은 프랑스 식민당국의 탄압을 받고 있는 까오 다이교 지도자들을 비호해 주었으며 그 교도 20,000여명을 비행장과 조선소, 항구의 노무자로 고용하고 저녁때에는 군사훈련을 시켰다(Macoy 1989, 116). 이는 의도적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일본군의 군사훈련이 네덜란드를 타도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교과서가 전하고 있는 일본점령기에 대한 평가를(전제성 2002, 28-35) 상기하게 한다. 까오 다이교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 쩐 광 빈(Tran Quang Vinh)은 자신이 ‘베트남의 독립을 위해 일본과 합작하라는 까오 다이 신의 지시를 따랐다’고 믿고 있었다(Tran My Van 1999, 138; www.caodai.net). 1945년 3월 프랑스 식민정부에 대한 일본의 쿠데타에 까오 다이 병사가 연루된 사건 또한 일본의 주구로서만이 아니라 프랑스의 타도에 우선권을 두었을 뿐 본질적으로는 ‘민족주의자’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베트남 역사교과서에서 명백히 친일 딱지를 붙인 베트남복국동맹회 같은 정치단체도 이처럼 그들의 ‘친일’이 갖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방어 내지는 변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게다가 베트남에서 공산당과는 다른 정치적 견해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인물, 예를 들어 ‘신베트남회’의 서기장이었던 부 딘 호에(Vu Dinh Hoe)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쩐 쯡 킴 내각은 종래의 친일집단과의 일선을 그은 ‘중간세력’ 지식인을 중요한 담수로 성립했다고 한 평가는(吉田元夫 2001, 516-22) 현재의 베트남 교과서와 공히 출판되고 있는 저작물에서 쩐 쯡 킴 내각 = 친일괴뢰정권이라는 공식 평가가 유지되고 있지만 고명한 역사학계에서 부는 새로운 동향을 대변하고 있다.

논의를 교과서가 명백한 친일의 성향을 갖는다고 규정한 개인이나 단체를 — 즉 베트남의 독립과는 일말의 관계도 없는 — 떠나, 때로는 또는 논자에 따라 친일로 분류될 수 있는 보다 불명확한 혹은 일관성 없는 ‘친일세력’으로 옮겨보자. 이러한 중심 이동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일본점령기에 대한 기존의 논의나 정통 베트남 역사 해석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기에 흥미롭다. 그 하나는 일본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명백히 공산주의자를 비롯한 모든 민족주의자의 활동과 그들의 조직을 탄압했으며, 일본의 점령기는 바공산주의적 민족주의에 아무런 유산을 남겨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역행하여 고사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남겨진 유일한 ‘민족주의자’ 집단인 베트민에게 정권을 넘기는 데에 공헌했다고 보는 일반론에 대하여 일본 점령 하에서 합법적으로 조직된 청년운동이 일본의 패전 후 독립투쟁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이들이 일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베트남 민족주의 운동의 촉매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있다. 그 증거로는 일본의 패전 직전에 ‘전선청년단’, ‘청년선봉’, ‘신베트남’의 지도자 다수가 베트민 지지자로 전환했음을 들고 있다. 도시에의 기반이 특히 취약했던 베트민이 1945년 8월 혁명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도시 청년과 지식인의 전향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다.³⁾ 둘은 1930년 인도차이나공산당의 결성 이후에는 줄곧 베트남의 민족주의를 공산주의자가 독점해 왔다고 하는 기존의 역사상을 비판하는 것이며 ‘비공산주의적 민족주의자’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동향을 대변한다. 동시에 ‘친일 세력’에서 바공산주의적 민족주의자를 가려내어 재평가하는 작업을 의미한다.⁴⁾

3) 물론 베트남민주공화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역사학계에서는, 청년운동 참가자와 지식인 등의 ‘도시 소부르조아’ 혹은 ‘중간 세력’의 베트민으로의 결집을 인도차이나공산당의 지도력 내지는 베트민의 민족주의적 통일전선의 성과로 묘사하는 경향이 강하다.

4) 도이머이 제창 이후 8월혁명 연구의 새로운 과제를 제기한 논문으로는 Duong Trung Quoc, “Cach mang Thang Tam 1945: tu hien thuc den nhan thuc” [1945년 8월혁명: 현실에서 인식까지], Nghien Cuu Lich Su, so 4, 1999 참조. 일본과 베트민의 사이에서 요동하는 ‘중간 세력’ 지식인의 사상 영위를 베트남 민족주의의 하나의 세력으로 인정하며, 8월 혁명에 이르는 과정에서 도시부의

3. 1940년에서 1945년까지의 경제적 수탈

마지막 몇 개월을 제외하고 프랑스와 일본이 베트남을 표면상 공동으로 지배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정치권력의 독점을 향한 경쟁관계가 확연히 유지된 반면, 경제에 있어서는 공조의 성향이 더욱 뚜렷했다. 또한 일본은 교과서가 밝히고 있듯이 베트남에 수출보다는 베트남으로부터 수입을 많이 했으며, 주로 1차산업에 투자하는 등 일반적으로 여타 제국주의 세력과 유사한 경제적 간여를 하고 있었던 것에 더하여, 전시라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도 특이한 현상은 일본이 프랑스 식민정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식량을 비롯한 경제 착취를 행했다는 점이다. 베트남인의 시각으로 보면 일본의 경제적인 요구를 잔악한 방법으로 실제 집행한 이는 프랑스 식민당국이었고, 이를 '경제지휘'나 세금 인상의 기회로 삼은 것도 후자였다.

이러한 특이성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베트남을 경제적으로 수탈했다는 사실에는 거의 이의가 없다. 광산업에 대한 일본 자본의 투자와 착취는 널리 알려져 있다. 베트남산 안티몬, 석탄, 철광석, 주석, 텅스텐, 납, 아연, 그리고 금, 은, 보크사이트, 동, 크롬, 수은을 비롯한 광산물이 일본의 주목을 받았다. 면화, 황마, 대마, 그리고 식물성 기름 나무, 그리고 고무 같은 산업 작물에 대한 요구가 해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어떻게 증가했는지에 대한 추세는 다양한 통계수치와 함께 자주 논의되는 주제이다. 여기에다가 이렇듯 베트남에서 취한 원자재가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종착지를 향해 갔는지도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요약컨대 베트남에서의 경제 수탈은 최소한으로는 태평양전쟁 수행의 지속

합법적 청년운동과 지식인의 독자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대표하는 연구자로서는 Pham Nhu Thom, "Cac tang lop thanh nien, tri thuc tieu tu san thi trong cuoc van dong Cach mang Thang tam" [8월혁명 운동 시기 도시 청년과 뿌리 부르조아 지식인 계층, Cach Mang Thang Tam: Mot so van de Lich su [8월혁명: 역사에 관한 몇 가지 문제], Nha Xuat ban Khoa hoc xa hoi, Ha noi, 1995가 있다.

을 위해서 그리고 최대한은 당시 일본이 주창하던 대동아공영권의 물적 자원 확보라는 구도 하에서 이루어졌다.

천연자원에 대한 수탈 자체는 쌀을 비롯한 필수식량의 헐값강제매입과 전쟁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농지전용이 일반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한 것에 비한다면 작은 문제이었다. 1942년 8월 협정으로 1942년과 1943년에 수확한 쌀과 옥수수 잉여 전량 또는 최소한 1,050,000톤의 쌀과 250,000톤의 옥수수를 일본에 공급하기로 약속한 프랑스 식민당국이 토지 소유량에 따라 일정양의 쌀과 옥수수를 정부에 팔도록 강제했다(Tran Van Giau 1962-1963, 122-3). 벼를 대신해서 전쟁에 필요한 작물을 재배하게 강제함으로써 1939년과 1944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식물성 기름 나무를 경작한 면적은 4배, 면화 경작지는 7배, 그리고 황마 경작지는 3배 증가했다(Huynh Kim Khanh 1982, 299). 이들은 모두 쌀 경작지를 희생하여 이루어졌으며 대규모의 기근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다.

4. 1944~45년 기근과 그 역사적 의미

1944년 말과 1945년 초에 아사한 200만이라는 베트남인의 희생에 대해 교과서는 이례적으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와 일본의 이중 탄압이 초래한 최종적인 결과로 묘사되고 있다. 이 기근은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역사 전개에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야말로 '기근의 정치경제학'을 논할 수 있다면 베트남의 1944~45년 기근은 아주 적절한 예가 될 것이다. 이는 그 숫자, 원인, 결과의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숫자부터 시작해 보자. 이 기근의 피해자(아사자)가 200만에 달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8월 혁명 이전부터, 당시 합법적으로 출판되고 있던 신문 잡지에 보도되고 있었지만(吉田元夫 2001, 508), 1945년 9월 2일에 호찌민이 낭독한 독립선언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었으며, 이후 베트남에서는 널리 믿어지고 있는 수치가 되었다. 이 문제가 전후 보상 문제

와 연관이 되었을 때는 주장하는 측에 따라 30만에서 200만까지 편차가 크게 났었다. 최근에는 정확한 수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吉田元夫 2001, 506-7).

기근의 원인에 대해서도 교과서가 표현하고 있는 기근에 이르게 한 착취의 일반성을 넘어서 본다면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인도차이나 주요 수송 도로에 대한 연합군의 폭격, 나쁜 기상조건, 일본과 함께 쌀 채기기 경쟁에 나선 프랑스의 정책, 인플레이션, 사소한 상황의 변화가 재난을 불러올 수 있는 항상적인 농민들의 생계위기, 베트남 사회의 불평등, 쌀을 투기의 목적으로 이용했던 무뢰배 혹은 투기꾼 등등이 모두 기근의 원인으로 제시되곤 한다. 그러나 이상의 그 어떤 요소보다도 앞에서 언급한 '일본적인 요인'이 컸음은 부정할 수 없다(Bui Minh Dung 1995, 573-618).

셋째는 결과의 측면이다. 그 기근은 그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일본의 불인처리를 전후한 시점에 발생해, 베트남독립동맹회(Viet Nam doc lap dong minh hoi, 줄여 베트민 혹은 越盟)가 주도한 1945년 8월 혁명의 시기까지 계속되었으며, 베트남현대사에 있어서 정치권력의 소재가 가장 극적으로 변화한 시기의 사건이었기 때문에도 중요하다. 베트남에서의 일본점령기는 그 종언과 함께 일어난 1945년 8월 혁명 그리고 베트남민주공화국의 수립과 함께, 그리고 이 두 사건의 주연인 베트민이 아사의 지경에 있는 베트남인을 돕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유일한 정치세력이었다는 인식선 상에서 위치 지워지고 있다. 또한 이는 민족주의나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떠나 정통성을 확보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1975년 남북통일에 의해 성립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역사화계는 8월 혁명으로 성립한 베트남민주공화국의 역사인식을 계승했다. 이는 1945년 기근 시에 베트민이 식량 창고를 공격하고 식량 공출과 부역 명령에 불복종하게 하는 운동을 주도하여 8월 혁명의 분위기를 고양시켰던 사실을 높이 평가한다(Tran Huy Lieu et al., 1958). 전후 17도선

이남의 남베트남을 관장하고 있던 응오 딘 지엠(Ngo Dinh Diem)정권과의 전쟁 배상 교섭에서 기근에 대한 일본 측 책임이 1960년부터 5년간에 걸쳐 무상공여 140억 엔, 차관 25억 엔을 지불하는 것으로 치환되었던 반면 북베트남 즉 베트남민주공화국은 일본이 지엠 정권을 베트남의 대표 정부로 인정하여 배상을 실시한 점과 200만이라는 수치가 30~100만으로 축소된 점에 대해 강한 항의 의사를 표명하였던(吉田元夫 2001, 506-7) 베트남이 1986년부터 도이 머이(Doi Moi)라는 개혁을 실시한 이래 사회 전반적인 변화 속에서 역사인식도 탄력성을 띠고 있어 공식적으로는 과거의 불행이 현재와 미래의 외교 관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기근 문제는 베트남 정부가 일본을 비난할 때 언제든지 내 놓을 수 있는 역사적 카드이다.

기근의 역사적이고 대내적인 역할로 관심을 모아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베트남 역사교과서와 공식 黨史가 표현하고 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이는 특히 응우옌 테 아인(Nguyen The Anh)에 의해 시도되었다. 그는 1930년 베트남 북부 농촌지역에서의 경제 위기가 응예 띠 소비에트로 절정을 이룬 1930~31년의 노동자·농민 운동에 영향을 주었듯이 1945년 베트남 북부 농촌 지역에서의 기근도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했다는 함의를 가지고 북부 베트남 농촌지역의 1930년 경제공황에서 1945년 기근까지를 다루고 있다(Nguyen The Anh 1987, 120-37). 특히 북부 베트남의 농민들은 기근에 대한 투쟁을 내세운 베트남의 선전을 수용했으며 이로 인해 농민의 다수를 포섭하게 된 베트남의 총봉기는 농촌 지역에서 발원하여 도시로 확대되어 8월 혁명을 완수했다고 하는 해석이나, 이는 베트남의 집권 후에도 농촌지역을 재조직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 기초가 되었다고 하는 그의 평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살핀 베트남의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일본점령기에 대한 역사인식과 평가 문제는 일본점령기에 대한 한국의 그것과 비교된다. 일본 점령 전에 조선과 베트남이 겪은 각기 다른 역사적인 경로를 생각해 볼 때 양국이 경험한 일본 점령에도 차이가 있을 것임을 쉬이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주재가 갖는 본질적인 성격의 차이로 인해 양국의 역사적인 경험과 인식도 달랐다. 우선 조선은 19세기 말 강화도조약과 20세기 초 을사조약을 거쳐 1910년 한일합방이라는 형식으로 일본에 복속되어 실질적인 식민지의 땅으로 전락했다. 반면 베트남은 태평양전쟁의 전야에 중국을 고립시키고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진입한 일본이 일정 기간은 프랑스 식민세력과 동거를 통해 그리고 마지막 몇 달 동안은 베트남의 형식적인 독립을 인정하면서 주로는 군사점령지로 이용했다. 조선과 베트남에서의 '식민'과 '점령'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베트남은 조선에는 없었던 프랑스 식민세력이나 '베트남독립국'이라는 정치적인 완충장치를 가지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일본에 대한 인식이 표현되는 방식을 달리 선택하게 했다. 한국에서 일제에 대한 평가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되어 가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베트남에서 일본 점령은 프랑스 식민주의자나 꼭두각시 베트남독립국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간접적으로' 판단되는 측면이 있다. 베트남과 조선의 차이는 1905년이 두 나라에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졌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극명히 드러난다. 조선에서 1905년은 을사조약의 체결로 조선이 일본의 속국으로 되는 결정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이 있는 해였지만, 베트남에는 특히 다수의 베트남 민족주의자들에게는 러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했음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민족주의를 도와줄 수 있는 열강으로 보여 일본에서 배우자(동유운동)는 운동을 벌인 활기찬 해였다.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망으로 1945년 8월은 한국이나 베트남의 역사에서 커다란 분기점을 이루며 독립을 이룬 원년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패전국이 된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이 이룬 독립의 의미와 승전국인 프랑스의 식민지였던(프랑스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인도차이나 점령은 잠시 퇴각한 순간에 벌어진 에피소드이었다) 베트남이 이룬 독립의 의미와 앞날은 크게 달랐다. ‘진정한’ 독립으로 가는 와중에서 한국과 베트남에서 권력을 장악했던 정권의 성격도 달랐다. 이는 역사에 정통성이라는 세레를 줄 수 있는 세력이 달랐음을 의미하며 바로 전 시기에 대한 양국의 역사인식의 차이를 가져왔고 이는 다시 역사교과서로 대변되는 역사 교육의 방향을 달리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역사는 어찌 보면 매일매일 달리 쓰이고 읽혀진다고 하는 말에서 보이듯이 관련국의 국내·외적 변화, 즉 베트남과 일본의 관계, 한국과 일본의 관계 변화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국주의가 태생 상 가지고 있는 본질, 근간이 되는 정책, 당시의 긴급한 필요와 피지배집단으로의 감수해야 했던 시련과 저항 정신은 베트남과 한국에 비슷한 역사적 경험과 기억을 갖게 했다. 일본점령기에 대해 한국과 베트남이 기억하고 역사 중에서 가장 커다란 공통분모는 경제적 수탈과 그에 따른 인민의 고통이다. 조선에서 일본은 미곡 수탈을 철저히 했으며 그 결과 농민의 식량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공업원료와 금속 제품 공출로 그 폐해는 극에 달했다. 베트남에서의 일본의 지배도 베트남의 농업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일본은 베트남에서 벼보다는 전쟁물자인 황마를, 옥수수보다는 아미를 강제로 재배시켰으며, 중세, 소금·아편·알코올의 전매, 공채, 기부금, 복권 등으로 베트남 민중의 생활을 극도로 압박하였다. 특히 일본군의 쌀과 그 밖의 군수물자의 징발이 가혹했던 결과 1944년 말과 1945년 초에는 베트남인 200만 명이 굶어죽었다고 전해진다. 일본군의 특별 엔을 통한 지불은 당연히 물가의 폭등을 초래했으며, 노동력의 징발이나 노동자의 징용은 민중의 생명과 생활에 더욱 커다란 압박을 의미했다.

일본의 지배가 조선과 베트남에 남긴 또 하나의 유사한 유산은 '일본화'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는 조선에서는 내선일체, 황국신민화라는 이념으로,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동아시아공영권이라는 이념으로 선전되었다. '일본화'는 이념적인 포장을 넘어서서 내용물도 채우고 있었다. 일본은 점령 당시 우익 단체와 정치가를 배양하고 지지 세력을 육성함으로써 '친일세력'을 확보했다. 신문, 라디오, 일본어 교육, 영화, 문화사절단 등을 이용하여 이념교육에 진력하여 아시아의 해방, 대동아공영권 사상을 고취시켰으나 베트남 민중이 겪은 현실생활의 중압감은 일본의 본질을 이해하게 하는데 모자라지 않았다.

[부록] 일본군 점령 시기에 대한 베트남 역사교과서 내용*

1.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베트남의 상황 (43-44쪽)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유럽에서는 파시스트 독일이 프랑스로 쳐들어가 프랑스의 반동자본가들을 완전히 투항시켜 종복으로 삼았다(1940년 6월). 극동에서는 군벌주의 일본이 일어나 중국을 침략했으며 越中 국경지대 가까이까지 일본군을 진군시켰다.

인도차이나에 있던 식민 프랑스는 두 가지 위협 앞에 놓였다: 하나는 인도차이나 인민의 해방혁명의 불길이 타올라 조만간 그들을 불살라 버리려 하고 있었다. 둘은 파시스트 일본으로부터의 위협이었다.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식민 프랑스는 한편으로는 전시 정책을 시행하고, 통치기구를 파시스트화하고, 우리 인민의 혁명 운동을 탄압했다.

다른 한편, 식민 프랑스는 파시스트 일본과 타협하는 길을 선택했다. 1940년 6월 20일 일본은 프랑스에 월중 국경을 폐쇄하여 무기와 물품이 [베트남] 박 끼[북부]를 통해 중국 내지로 수송되지 못하도록 요구했다. 그 해 8월 인도차이나에 있던 프랑스는 인도차이나에서의 일본의 특권을 인정하는 협약에 서명했다.

한 달 후에는 다시 일본에게 박 끼에 있는 세 개의 비행장(지야 럼, 잣 비, 푸 랑 트엉)을 사용하고, 홍하 이북에 6,000명의 군사를 주둔시키

* 여기에 번역되어 있는 일본군 점령 시기에 대한 베트남 역사교과서의 내용은 베트남 교육부 편(Bo Giao Duc va Dao Tao) 2002년도 판, 역사교과서 12, 권 2 (Lich Su 12-Tap Hai), 7과(Bai 7) 8월혁명운동, 1939-1945(cuoc van dong cach mang thang tam), 43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의 내용이다. 베트남에 대한 일본 점령과 관련된 교과서의 전문을 가능하면 그대로 번역한 이유는 사실이 표현되는 맥락, 그리고 사용하는 어휘를 그대로 살려 베트남 역사 교과서 내용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며, 중국 내지로 병사를 진군시키기 위해 박 끼의 길을 사용하게 한다. 이는 협약에 서명해야 했다. 파시스트 일본은 한편으로는 식민 프랑스를 강제하여 이러 저러한 양보를 받아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주와 자산가 집단 중에서 기회 분자들을 유인하여 그들의 침략 음모에 가담케 했다. 이들 무리는 정치 당파의 형식(大越, 復國...)을 띠고 혹은 종교 안에서 활동하면서 일본의 문명과 무력에 관하여 헌신적으로 선전했으며, 일본이 프랑스를 배제해 버릴 수 있는 길을 준비했다.

2. 새로운 상황과 기의의 발생(46-48쪽)

(1) 박 선 기의(1940년 9월 27일)

1940년 9월 22일 일본군이 랑 선으로 쳐들어왔다. 프랑스 군대는 패주하여 박 선으로까지 도망쳐 들어왔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박 선의 인민은 스스로 무장하여 적의 정권을 해산시키고 혁명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 프랑스 군대의 무기를 탈취했다(9월 27일). 그러나 얼마 후 일본은 타협하여 프랑스로 하여금 다시 이 기의를 탄압하고 간부를 붙잡아 들고 인민의 집을 불태우고 재산을 강탈하게 했다.

지방 당부의 영도 아래 인민은 테러에 결연하게 맞서 투쟁했으며, 무장대를 조직하여 적의 꼭두각시를 징벌했다. 이 덕분에 기의의 기반은 유지되었으며, 기의군은 점차 군사 근거지를 만들어갔다. 모든 혁명 공작을 지휘하기 위해 지도위원회가 성립되었다…….

적 프랑스의 탄압은 극히 야만적이었다. 랑 선에서만도 파시스트 일본이 이 성의 도심에 들어온 이래 수백 명의 인명을 살상했으며, 그 중에는 여자와 어린이들도 들어 있었다…….

(2) 남 끼 기의(1940년 11월 23일)

파시스트 일본은 태국의 군벌 세력에게 프랑스가 유럽에서 패하고

인도차이나에서도 약화된 틈을 이용하여 라오스와 캄푸치아 변경지대를 취하라고 선동했으며 이에 필요한 도움을 주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프랑스 식민당국은 베트남 병사를 징집하여 전선에 내보내 자신들을 위해 죽도록 내몰았다(1940년 11월). 남 끼의 인민들 사이에는 불만이 고조되었으며 특히 많은 병사들은 도망을 치거나 비밀리에 남 끼남부에 있던 공산당 지부와 연락을 취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 남 끼 당부는 중앙당의 허가를 얻기 전에 기의를 결정해야 했다. 기의 전에 몇 명의 지도 간부가 붙잡히고 기의 계획이 탄로 났다……. 약 40여 일 동안 자 딘, 미 토, 롱 쑤옌, 칸 토에서만 약 6,000명이 체포되었다…….

(3) 도 르엥 병변 (1941년 1월 13일)

혁명운동이 고조되어 프랑스 군대 내의 베트남인 병사들의 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응예 안에 있던 베트남인 병사들은 강제로 라오스 예까지 가서 프랑스를 위해 태국과 싸워야 했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다.

1941년 1월 13일 도이 쑹(응우옌 반 쑹, Nguyen Van Cung)의 지도 아래 장시장(cho Rang) 둔영병사들이 일어났다. 그날 저녁 이들은 도 르엥 둔영을 쳐서 점거했으며, 그리고 나서 차를 끌고 빈(Vinh)으로 가서 그곳의 병사들과 합류해 적을 죽이고 시내를 장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도이 쑹은 프랑스 당국에 체포되었다.

3. 일본, 인도차이나에 들어오다(49-52쪽)

(1) 일본-프랑스, 있는 힘을 다하여 인도차이나 인민을 착취하다.

랑 선에서(1940년 9월) 일본에 투항하여 이들이 인도차이나로 들어오는 문을 열어준 후 프랑스 식민당국은 눈에 띄게 약화되었다. 일본은 계속 인도차이나를 강탈해 들어와 속지로 만들었으며 전쟁을 위한 근거

지로 만들었다. “인도차이나 공동방어협약”(1941년 7월 23일)으로 일본은 인도차이나 전 지역에 군사를 주둔시킬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다. 단 6일 후에 프랑스 정부는 일본과 또 다른 협약을 맺어 일본이 인도차이나에 있는 모든 비행장과 항구를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내주었다(1941년 7월 29일). 태평양전쟁을 시작할 때까지(1941년 7월 12일) 일본의 강요로 인도차이나에 있는 식민 프랑스는 행군, 식량 공급, 병영 유지와 같이 전쟁에 관련된 모든 일을 쉬이 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본 군대에게 안전한 후방을 보장하기 위해 인도차이나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등 모든 측면에서 일본에 협력하기로 한 또 다른 협약을 체결했다. 지금에서 본다면 실제로 프랑스와 일본은 인도차이나 인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데 함께 손을 맞잡았던 것이다.

일본의 자본 기업은 날이 갈수록 인도차이나에 많은 자본을 들여왔으며 많은 공업과 상업 기업들(인도차이나 상업과 공업 회사, 대남회사)이 활발히 활동했다. 공업에 관해 보면 일본은 자본을 주로 광산업(철광석, 망간, 인 등등)에 투자했다. 상업에 관해서 보면 1942년부터 인도차이나의 거의 유일한 고객이었던 일본은 팔기는 조금만 팔고 사가는 것을 주로 했다. 일본은 프랑스 식민정권을 강압하여 쌀, 옥수수과 같은 필수 기본 식량을 공급하게 했다. 충분한 양의 식량을 확보하고 일본에 공급하기 위해 식민 프랑스 정부는 우리 인민들에게 경작면적에 따라 쌀을 팔도록 강제했다. 이보다 더욱 잔악하고 무도하게도 이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벼를 뽑아내 버리고 채 밭을 뒤엎고 나서 전쟁에 필요한 원료를 취하기 위해 黃麻, 苧麻 등등을 대신 심도록 했다. 너무도 분명히 파시스트 일본은 인도차이나에 밭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직접적으로 혹은 프랑스의 손을 빌어 간접적으로 우리 땅의 원자재와 식량을 철저히 착취했으며 우리 인민을 전쟁에 이용했다.

일본이 주리를 틀어잡고 모든 것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식민 프랑스 정부는 언제나 더 많은 속임수를 동원하여 가장 커다란 이익을 챙

졌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經濟指揮”(kinh te chi huy)라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 본질은 전시를 이용하여 인도차이나 경제의 모든 면에 대한 독점권을 장악하는데 있었으며, 우리 인민을 가능한 한 많이 착취하는 데에 있었다. 두 번째 수단은 세금, 특히 간접세를 올리는 방법이었다. 주세, 소금세 그리고 아편세는 1930년부터 1945년 사이 3배로 뛰어올랐다.

더욱 잔악한 수단은 식량을 강제로 매입하는 것이었다. 이때 식민 프랑스는 협박을 동원하고 아주 험값으로 쌀을 매입해 일부는 일본에 공급하고 일부는 자신들의 전쟁을 준비하게 위해 비축해 두었다. 이러한 잔악한 수단은 시장에도 식량이 모자라는 난을 초래했으며,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북부에서는 2백만이 넘는 인민이 1945년 초에 굶어죽었다.

(2) 일본과 프랑스가 사용한 속임수 정치 수단들

강압적인 행위와 침략의 음모를 덮고자 그리고 동시에 인도차이나를 그럴듯하게 독점하기 위해 파시스트 일본은 비밀리에 지식분자, 프랑스 식민세력에 불만을 품고 있는 인사들(전 쯡 김 Tran Trong Kim, 응우옌 쉐옌 쯔 Nguyen Xuan Chu와 같은), 혹은 프랑스의 구 스파이들(응우옌 테 응이엵 Nguyen The Nghiep과 같은)을 규합하여 이들 무리들로 하여금 친일정당들(大越 民政 Dai Viet dan chinh, 大越 國社 Dai Viet quoc xa, 베트남 愛國 Viet Nam Ai Quoc, 復國 Phuc Quoc, 大越 國家聯盟 Dai Viet quoc gia lien minh 등)을 만들도록 했다. 일본은 또한 남 끼에서 프랑스에 저항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던 종교 단체(까오 다이 Cao Dai, 호아 하오 Hoa Hao와 같은)를 이용했다. 일본은 이들 각 분파들을 규합하여 “베트남 復國同盟會”(Viet Nam phuc quoc dong minh hoi)라는 명칭을 가진 친일단체를 형성했으며, 꼭두각시 정부를 세워 일본의 주구로 삼았다.

동시에 일본은 “대동아공영권”과 같은 허황된 사상을 유포시켰으며 (Christie 2001, 77-81), 일본어로 된 책을 수없이 출판하고, 일본어를 가

르치는 수업을 개설했으며, 인도차이나와 일본의 지식인, 학생 그리고 선생들의 교환을 조직하는 등 일본의 문화와 “무적 일본”의 무력을 선전하며 인도차이나 인민 사이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을 구축해 나갔다.

파스시트 일본과 인도차이나 혁명이라는 위협적인 세력에 대처하기 위해 식민 프랑스는 이중의 정책을 시행했다. 즉 한편으로는 혁명 전사를 위협, 탄압하고 가두어들였다. 인도차이나 민주전선 시기에 형성되었던 “인민대표회의”(hoi dong dan bieu)는 모두 해산되었다. 다른 한편 식민 프랑스는 여러 기만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 인민이 그들을 “친구”로 오해하게끔 했다. 그러나 이들은 “적”에 지나지 않았다…….

(3) 프랑스와 일본이라는 이중의 착취 아래 있었던 베트남 인민의 상황

프랑스와 일본의 이중 탄압과 착취 아래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계층이, 특히하게는 농민이 어렵고 어려운 상황 속으로 밀려들어갔다.

농민의 생활은 정말이지 절망적으로 가난했다. 식량을 빼앗긴 수많은 농민이 기아로 죽거나 고통 받았다. 1944년 말과 1945년 초에 굶어 죽은 2백만의 다수는 다름 아닌 농민이었다. 노동자의 생활도 곤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벌금으로 잘린 월급은 또 다시 인하되고 일하는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구타는 심해지는 상황에 더하여 해고와 실업이라는 위협까지 가중되었다. 소자산 계층의 생활 또한 불안정했다. 자산 계급과 지주 계급의 소수는 프랑스와 일본과 가까이 지내면서 이득을 챙길 수 있었지만 다수는 파산하거나 망했다.

4. 항일구국 고조에서 1945년 8월 총기의까지(57-61쪽)

(1) 일본이 프랑스 정권을 타도하다(1945년 3월 9일)

1945년 초에 들어 세계대전이 종결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유럽의 전장에서 파시스트 독일은 소련의 영토에서 소탕 당했으며, 동유럽 여러 국가들이 해방을 얻었으며, 수도 베를린은 조만간 함락되었다. 동시에 英美軍은 프랑스 땅에 상륙하여 비로소 독일과 개전하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해방되었으며, 드골 레지스탕스 정부는 파리로 돌아왔다.

태평양 전선에서 파시스트 일본 또한 계속되는 영미의 공격으로 여러 전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인도차이나에서 식민 프랑스도 이 기회를 이용해 고개를 들었다. 이들은 연합군이 인도차이나로 들어와 일본을 패배시키고 예전에 누리던 식민세력으로서의 지위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때를 기다리며 주도면밀하게 움직였다. 인도차이나에서 일본과 프랑스의 상반되는 모순이 격화되었다.

1945년 3월 9일 저녁 일본은 인도차이나에 있는 프랑스에 총부리를 겨누었다. 프랑스의 저항은 극히 미약하여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항복했다. 프랑스를 내몬 이후 일본 천황은 인도차이나 각 민족의 독립을 도와주겠다고 선언했다……. 프랑스를 타도한 직후 모든 일은 예전과 같았으며 변한 것은 없었다. 후에 조정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원래 프랑스의 속지였던 남 께[남부] 그리고 원래 半屬地, 半保護地였던 박 께북부와 중 께[중부]는 이제 프랑스인을 대신하여 일본인 무관과 정치가들이 總督(혹은 統督, thong doc), 總使(혹은 高等辦務官, thong su)와 欽使(kham su)의 자리를 차지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 정권은 폐기되었다. 친일 무리(bon than Nhat) 쩌 쯡 께이 나서 신정부를 구성하고, 괴뢰 바오 다이가 “국가원수”(Quoc truong)라는 칭호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최고고문”(Toi cao co van Nhat)이 인도

차이나에서 예전에 프랑스인 총독을 대신해 모든 일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들 친일 무리는 무력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일본이 더 수월하게 우리 인민을 기만하고 착취할 수 있었을 뿐이다 …….

참고문헌

1. 역사교과서

Bo Giao Duc va Dao Tao, 2002, *Lich Su 12*[역사 12], Hanoi.

2. 일반문헌

조재현. 1995. “베트남 점령과 일제의 이중성.” 조재현 외 편. 『일제하의 동남아』.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전제성. 2002. “인도네시아 역사교과서의 일본점령기 평가.” 한국동남아학회 편. 『동남아 역사교과서의 일본점령기 평가에 관한 연구: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타이 4개국 비교』. 한국교육개발원 ‘국내외 한국학 및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 관련 유관학회와 시민단체 지원.

Bui, Minh Dung. 1995. “Japan's Role in the Vietnamese Starvation of 1944-45.” *Modern Asian Studies* 29(3).

Christie, Clive J. 2001. *Ideology and Revolution in Southeast Asia, 1900-1980*. Surrey: Curzon.

Christie, Clive J. 1998. *Southeast Asia in the Twentieth Century: A Reader*. London and New York: Tauris Readers.

Duncanson, D. J. 1968. *Government and Revolution in Vietnam*.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Drackman, E. R. 1970. *United States Policy Toward Vietnam 1940-1945*. New Jersey: Associated University Press.

MacAlister, J. 1969. *Viet Nam: The Origins of Revolution*. New York: Alfred A. Knopf.

- Masaya Shirai and Motoo Furuta, 1992, "Two Features of Japan's Indochina Policy during the Pacific War," *Indochina in the 1940s and 1950s*, Ithaca : Cornell University.
- Masaya Shiraishi, 1992, "The Background to the Formation of the Tran Trong Kim Cabinet in April 1945: Japanese Plans for Governing Vietnam," *Indochina in the 1940s and 1950s*, Ithaca : Cornell University.
- Massaya Shiraishi, 1985, "Vietnam under the Japanese Presence and the August Revolution," *International Studies*, London :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 Minami Yoshizawa, 1992, "the Nishihara Mission in Hanoi, July 1940," Takashi Shiraishi and Motoo Furuta eds, *Indochina in the 1940s and 1950s*, Ithaca : Cornell University.
- Macoy, Alfred, 1989, *Southeast Asia under Japanese Occupation*,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 Ngo Van, 2000, *Viet-nam 1920-1945 Revolution et Contre-revolution sous la Domination Coloniale*, Paris : Nautilus.
- Nguyen The Anh, 1987, "La Campagne Nord-vietnamienne de la Depression Economique de 1930 a la Famine de 1945," *The Vietnam Forum* 9 (Winter-Spring).
- Tarling, Nicholas, 2001, *A Sudden Rampage, The Japanese Occupation of Southeast Asia, 1941-1945*,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 Tran My-Van, 1999, "Japan Through Vietnamese Eyes (1905-1945),"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30(1).
- Vinh Sinh and Wickenden, Nicholas trans, 1999, *Overtured Chariot, The autobiography of Phan Boi Chau*,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 Yukichika Tabuchi, 1992, "Indochina's Role in japan's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 A Food-Procurement Strategy," *Indochina in the 1940s and 1950s*, Ithaca : Cornell University.
- Duong Trung Quoc, 1999, "Cach mang Thang Tam 1945 : tu hien thuc den nhan thuc" [1945년 8월혁명 : 현실에서 인식까지], *Nghien Cuu Lich Su*, so 4.
- Pham Nhu Thom, 1995, "Cac tang lop thanh nien, tri thuc tieu tu san thi trong cuoc van dong Cach mang Thang tam" [8월혁명 운동 시기 도시 청년과 빈민 부르조아 지식인 계층], *Cach Mang Thang Tam : Mot so van de Lich su* [8월혁명 : 역사에 관한 몇 가지 문제], Hanoi : Nha Xuat ban Khoa hoc

xa hoi.

- Tran Huy Lieu - Nguyen Luong Bich, Nguyen Khac Dam bien soan, 1957, *Xã Hoi Viet Nam trong Thoi Ky Phap Nhat* [일본-프랑스 시기 베트남 사회].
Quyen I, *Phap dau hang Nhat: Nhat, Phap boc lot Viet-nam* [프랑스의 일본에의 투항: 佛日の 베트남 착취]. Hanoi: Nha Xuat Ban Van su dia.
Tran Van Giau, 1962-63, *Giai cap Cong nhan Viet nam Tu The ky XIX den Cach mang Thang Tam* [19세기부터 8월혁명까지의 베트남노동자계급]. Vol. 3, 1939-1945. Hanoi: Vien Su Hoc.
Van Tao, Furuta Motoo bien soan, 1995, *Nam Doi Nam 1945 o Viet Nam - Nhung Chung Tich Lich Su*, Hanoi: Vien su hoc.

- 古田元夫, 2001, “ベトナム現代史における日本占領” 倉受子 編 『東南アジア史中の日本占領』, 東京: ウアセダ 大學 出版.
後藤乾一, 2001, “日本—東南アジア 占領と「解放史観」,” 『東南アジア史中の日本占領』, 東京: ウアセダ 大學 出版.

How do the History Textbooks of Vietnam Describe the Japanese Occupation of 1940~1945?

NOH Young Soon

Research Fellow,

The Institute of Cross-Cultur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outbreak of the Second World War in 1939, Japan determined to take over French Indochina with the immediate aim to cut off aid route to the Chiang Kai Shek's nationalists government in Chungking and to expand its empire further into whole Southeast Asia. Since securing its military presence in northern Vietnam in September 1940, Japan succeeded in forcing French colonial regime to wield supreme power over southern Indochina.

The Japanese imperial ambition and war situation led to the extreme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foodstuffs from Vietnam. Moreover the Japanese war effort demanded ever-increasing squeezing of human resources. In due course the oppressive and arbitrary behaviour of Japanese military authorities as well as the increasing economic hardships triggered considerable resentment among Vietnamese. Combined with the development of nationalist-communist movement, it nurtured nationalist aspiration which was to be the main force to initiate the process of de-colonialization in the post-war period.

In general the history textbooks of Vietnam describe the

Japanese occupation or military intervention as having negative one. This theme is consolidated by dedicate large space of the textbooks to the examples of showing 'falseness' of the Pan-Asian rhetoric, exploitation of natural and human resources, crudeness of Japanese army and hardships and humiliation towards Vietnamese. That is why the Vietnamese textbooks of history articulate indisputable heritage of the Japanese occupation to the effect of the starvation of nearly 200million people. In addition to the above-mentioned 'official' opinion on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this article examines the new tendencies to interpret some very important themes including 'collaborates' or 'pro-Japanese Vietnamese' and famine of 1945.

Keywords : Japanese Occupation, History Textbooks of Vietnam, Vietminh, Pro-Japanese Vietnamese, Famine of 1945